



WINE REVIEW Octobre 2013

도멘 끌로 생 랑들랭 르네 뮈레 Domaine Clos St Landelin René Muré

도멘 르네 뮈레는 루파크(Rouffach)에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1650년대이고 현재는 11대손인 르네 뮈레와 12대손인 그의 딸 베로니끄, 아들 또마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총 25ha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밭은 석회 점토질의 토양으로 구성되고, 구릉이진 포도밭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정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포도가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96년부터 유기농으로 경작을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는 모두 바이오다이내믹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르네 뮈레 와이너리를 방문하기 전부터 이곳의 삐노 누아가 우수하다는 말을 들은 지라 하루 반 나절 동안 계속 시음한 화이트 와인은 잠깐 잊기로 했다. 물론 르네 뮈레의 화이트 와인 또한 우리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게 만들었지만 말이다. 몇 시간 전에 열어둔 것과 방금 오픈한 삐노 누아 두 병을 놓고 테이스팅의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은 지금 마셔도 좋지만 오래 보관도 가능한 힘이 있는 와인이라는 평가로 모여졌다. 화이트 와인은 먼저 크레망 달자스를 시작으로 삐노 그리, 리슬링, 게뷔르츠트라미너, 삐노 블랑의 6종을 시음했다. 우리들의 시음에는 베로니끄 뮈레가 자세한 토양, 양조 과정을 덧붙여 테이스팅을 도와주었다. 르네 뮈레의 와인은 한독와인을 통해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1



2



3

1 좋은 위치에 자리잡은 포도 2 르네 뮈레와 그의 딸 베로니끄 뮈레 3 시음 와인들